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한다”

- 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최초로 개소를 앞둔 충남대 병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현장 방문, 의학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지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수),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 (참석) 조강희 충남대학교 병원장, 윤석화 진료부원장, 이석구 공공부원장, 강성욱 교육인재개발실장, 민효숙 간호부장 등
 -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 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하였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 * '21년부터 매년 2개 국립대병원 선정·지원(24년 기준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소 선정)
-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 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성현국 (044-200-2293)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044-200-229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